

#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있는 시민 양성

## 도교육청,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세계 시민교육 선도교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계시민교육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세계 평화, 인권, 문화 다양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다.

도교육청은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해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 가능한 세계시민교육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교수학습·연구개발 활동을 선도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인선 교사(전북과학고)를 비롯한 6명의 강사가 ▲세계시민교육의 개념

및 배경 ▲보드게임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이해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2015 개정교육과정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의 실제 ▲교실·교육과정 속 세계시민교육 등의 내용으로 강연한다. 이번 연수는 17~18일 완주 삼례 책마을에서 진행했고, 24일에는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선도교사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받은 선도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세계시민의식을 뿌리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평화롭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 민주적 소양과 역량을 갖춘 세계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군산교육지원청이 관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과학탐구대회를 개최했다.

## 도교육청, 사제동행 독서토론 동아리 지도교사 워크숍 실시

사제동행 독서토론 동아리 지도교사 워크숍이 5월 17일, 24일, 31일 학교급별로 각각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사제동행 독서토론 동아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올해 선정된 전체 동아리 300팀의 지도교사들이 참여한다. 지난 17일 열린 초등 지도교사 워크숍은 161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후 3시부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2층에서 진행됐으며, 작년 한해 동아리 운영 사례 발표와 올해 동아리 운영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4일에는 중학교 지도교사 41명이 전주서중학교 도서실에서 워크숍을 열고, 지난해 운영 사례와 올해 운영계획에 대해 교과별 5개 분임으로 나눠 공유한다. 이어 31일에는 고등학교 지도교사 98명이 참가해 운영사례와 계획을 발표하고 공유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제동행 독서토론 동아리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와 계획 등을 발표하고 공유함으로써 지도교사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독서 지도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동아리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북광역시·여성새일센터가 17일 순창군 강천산 일대에서 기업인사담당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화합의 장을 개최했다.

## 여성고용안정화 위한 화합과 소통의 산행

### 전북광역시·새일센터, 기업 인사담당자 네트워크 강화 나서

전북광역시·전북여성새일하기센터(이운에 센터장)는 17일 순창군 강천산 일대에서 기업인사담당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화합의 장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인기업체 인사담당자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경력단절여성 취업 활성화와 고용유지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전주시 등 도내 8개 시·군 여성친화 유망기업 한국씨엔티(주), 연

경전자(주), 내래식품(주), 전북벤처기업협회, (주)뱅크정밀항공, 고려자연식품(주) 등을 비롯해 120여개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취업상담사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기업 간 정보를 공유하고, 여성들의 적극적인 채용과 취업여성의 고용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나누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운에 센터장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임을 안다.

이번 산행이 기업 인사담당자와 취업상담사 간 화합을 도모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어 좋은 일 자리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이 되었음을 확신하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과 네트워크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취업지원팀(063-254-3607)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 도교육청, 서기관 승진 대상자 3명 선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역량 평가를 통해 7월1일자 4급 서기관 승진대상자 교육행정직 3명을 최종 선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서기관 승진 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역량 중심의 평가 시스템 구현으로 고품질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과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4급 승진에 역량평가와 현장평가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승진 심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

했다. 역량평가는 평가위원 전체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으며, 평가 대상자가 작성한 자기기술서를 토대로 1인당 40분 이내의 심층 면접을 통해 서기관으로서의 역량인 전략적 사고, 변화관리, 조정·통합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으며, 현장평가는 5급 재직 기간 중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동료직원(상급자, 동급자, 하급



김현주 이병노 이영현

자) 20명이 심사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리더십에 대하여 평가했다. 한편, 이번 서기관 승진 대상자들은 오는 7월 1일자로 인사 발령된다. /장은성기자



## 군산교육지원청, 청소년과학탐구대회 개최

전북도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광순)은 관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 군산시 청소년과학탐구대회를 개최했다. 신흥초교를 비롯해 3개 장소에서 올해 열린 청소년과학탐구대회는 지역 내 179팀 358명이 참여한 가운데 융합과학, 항공우주, 과학토론 등 3개 분야별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대회에는 전라북도 청소년과학탐구대회에 시 대표로 참석할 팀을 선발하는 예

선전의 성격도 겸하고 있다. 주광순 교육장은 "부족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기초과학의 육성과 더불어 창의적인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의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력을 신장하기 위해 마련한 대회인 만큼 평소 애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기자

## 군산대, 황룡아동제 개최... 수준 높은 작품 선보여

군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군산대학교 아카데미 홀에서 최근 '제20회 황룡아동제'를 개최했다. 황룡아동제는 졸업생 앞둔 예비교사들이 그동안 연마해온 역량을 발휘하여 마련하는 졸업 작품 무대로, 관내 어린이집 원생들과 보육교사, 학부모 등을 초청해 공연을 펼치고 있다. 매년 수준 높은 작품들을 선보이며 지역 아동을 위한 고급 문화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행사에는 꿈꾸는 어린이집, 육스퍼드어린이집, 꼬마천사어린이집, 새싹어린이집 등 관내 33개 어린이집 소속 어린이 1522명이 참석했다. 4학년 권원주, 간희철, 채우리 학생

등 군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학생 89명이 오랜 기간 연습하고 다듬어 마련한 무대이다. 행사는 '이 세상에 좋은 건 모두 주고 싶어' 등의 합주와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등의 율동, 동극 '네버랜드로 떠난 웬디와 릴리', 뮤지컬 '행복을 찾아서' 등으로 진행되었다. 군산대학교 임춘희 학과장은 "멋진 공연을 위해 밤늦게까지 땀 흘리며 연습하고 수고해준 아동가족학과 모든 학생들과 열정으로 지도해주신 학과 교수님들, 아동가족학과에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군산=김정훈기자

## 우석대 교무위원들, 대학발전 기금 3000만원 전달

우석대학교는 교무위원들이 개교 40주년을 맞아 기금 3000만원을 출연, 장영달 총장에게 전달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들 교무위원은 대학 발전의 열의를 담아 기금을 마련하게 됐으면서 우석대가 지역을 대표하는 학생 중심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기부 이유를 밝혔다. 장 총장은 전국의 모든 대학이 위기감을 느낄 만큼 국내 대학의 현실이 녹록지 않지만, 대학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한데 모은다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